

시민과 소통 강화 · 다양한 플랫폼 손쉽게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 · SNS 등 최신 트렌드 반영 쌍방향 · 맞춤형 정보 교류

군산시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사업을 통해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편 전 홈페이지는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로 구성돼 일방형 정보제공만 가능했으며 최신 트렌드인 모바일, SNS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의 연동이 미흡했다.

새로 개편한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PC,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화면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홈페이지 환경이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방식이 구현되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유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이용자가 다양한 플랫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개편으로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쌍방향 ·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돼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 대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대표 관광지인 고군산군도와 시간여행마을 메뉴를 신설해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관광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 이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체류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여행객이 직접 식당, 숙소 등을 선택하고 맛, 친절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내 모범음식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쌍방향 예약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 모집

군산시는 오는 9월 14일~16일에 개최되는 제6회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성공으로 이끌 플래시몹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는 홍보공간의 일반적 범주를 넘어 자율적인 이동 공간에서 근대 복장의 컨셉으로 음악과 율동을 표현하는 이색 마케팅으로 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돼 시간여행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은 3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으며, 대상은 군산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주말 교육 및 홍보활동이 가능한 학생으로 30여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http://festival.gunsan.gok.kr>)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454-3303)로 문의하면 된다.

관내 초등학교로 구성된 '2018 군산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는 1990년대 분위기의 흥겨운 가락과 춤으로 신비롭고 신나는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이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홍보를 나설 예정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올해도 플래시몹 서포터즈에 끼와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 추가 보급

남은 수량 10대 소진완료 시까지 신청 · 접수

익산시는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효과가 있는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 남은 수량 10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인목 목재펠릿은 목재를 고밀도 압축·가공해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화석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상당부분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올해 목재펠릿보일러 23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신청물량이 13대에 그쳐 따라 남은 수량 10대에 대해 추가로 신청 접수 받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익산에 주소를 둔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후 5년이 지난 경우라면 누구나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산림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1대당 400만원 기준으로 주거용 보일러는 70%인 280만원, 주

민편의·사회복지용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2017년에 난방출력이 52kW인 목재펠릿보일러가 추가로 등록됨에 따라 최대 264㎡까지 난방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주택 외의 건축물에 주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목재펠릿보일러 신청 희망자는 건축물대장·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산림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산림과(859-546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방식 개선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익산의 자랑이자 시조시인으로서 한국현대시조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가람 이병기 선생 문학작품 세계의 높은 정신을 계승하고자 가람시조문학상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가람시조문학상은 2001년부터 익산시가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다.

하지만 수상자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문화계는 물론 언론계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었고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참여자의 폭을 제한한다는 의견과 선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 불신 등이 있어 이러한 의심의 개선성을 차단하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주요개정(안)은 지금까지는 추천위원에 의해 추천된 시조시인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많은 시조시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고, 추천위원은 이에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잡았다.

또한 현행방식은 운영위원이 추천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 중 일부를 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공정성 결여에 대한 개선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결정을 금지하는 내용이 가장 큰 변화다.

그밖에도 운영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해 심사위원도 이어서 할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규칙을 제정해 세부운영 방안을 만들어 올해부터 적용하여 운영하겠다"며 "전국에서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 계속 유지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곽병선 교수, 군산대 제8대 총장으로 공식 임명

군산대학교 곽병선 교수(58, 법학과)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군산대학교 제 8대 총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임기는 2018년 3월 22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4년이고, 취임식은 오는 4월 4일 11시 군산대학교 이카테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2일 직원들의 환영 속에서 첫 출근을 한 곽병선 총장은 부서별 현안 및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곽 총장은 "소통과 배려로 사람을 중



시하는 따뜻한 대학행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히고, "대학브랜드 특화, 협력적 대학문화 조성, 교육역량 강화, 양성평등 대학문화 조성, 연구지원 체계 강화, 교직원 복지후생 확대 등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곽병선 총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치러진 군산대학교 제 8대 총장임명후보자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다.

1997년부터 군산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교무처장, 법학연구소 소장, 교수평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부회장, 한국법리론실무학회 이사장, 군산시지원 봉사센터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서동석 군산시장 예비후보 "아빠가 행복한 도시 ·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건설"

서동석(58·무소속)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아빠가 행복한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9일 군산시청과 서울 세종로에 울려 퍼진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군산시민과 한국지엠 근로자 가족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특히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고 힘에 겨워 아까마

저 축 늘어진 아빠를 지켜 달라던 13살 어린 딸의 눈물이 잊혀지지 않는다.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며 이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책은 물론 생계와 주거비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 예비후보는 한국지엠 해고 노동자는 물론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들의 청년채용 확대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청년은 물론 중장년·노년층의 취업 알선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또는 군산지역 공단 입주기업에게 '취업인센티브'를 실시 확대할 것은 물론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군산시의 일자리담당관실에 '빈관 상설 취업기부' 설치하고 '상설 취업 박람회'도 설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예비후보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사태로 군산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누가 경제를 살려낼 것인가는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 준비된 행정전문가 시장 후보인 서동석이 반드시 군산경제를 살리고 살맛나는 군산·일자리가 넘쳐나 아빠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동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